

함평군, 나비축제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

여행사·전세버스 사업자 25% 보상
유료 관광객 20명 이상 유치시 적용
행사기간 매표소에 구비서류 제출
나비·생태 전시 등 프로그램 다채

함평군이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광객 편의를 높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치 보상금(인센티브) 지원에 나섰다. 함평군은 1일 오는 25일부터 5월6일까지 개최되는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 기간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와 전

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25%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치보상금은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해 축제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유료 관광객 20명 이상을 유치한 국내 여행사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로 지급액은 입장료의 25%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행사나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 기간 동안 황소의 문 주차장(제1주차장) 소재 자동차극장 매표소에 마련된 지급창구에 관광객 유치보상금 지급 신청

서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상의 함평군은 "여행사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협조로 더 많은 관광객이 함평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치보상금을 마련했다"며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나비대축제는 문화관광체육부가 지정한 명예 문화관광축제로서 전국 최대 생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는 '나비, 황금

박쥐를 만나다'를 주제로 '황박이와 함께 하는 함평 나비 세상'을 부제로 12일간 함평엑스포공원 일대서 열린다. 다채로운 봄꽃과 함께 야외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를 만나볼 수 있으며 소원을 빌며 직접 나비를 날려 보내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다. 황금박쥐가 있는 함평추억공작소와 다육식물관, 나비곤충생태관, 자연생태관, 아열대농업관, 수생식물관, 함평군립미술관, VR체험관 등이 있으며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에 한창이다.

조진용·함평=신재현 기자

치매·우울증 환자 대상
'치유 프로그램' 운영
곡성군, 씨앗심기·텃밭 가꾸기 등

곡성군이 오는 3일부터 치매 환자와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실증포에서 치유프로그램을 추진한다. 1일 곡성군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운영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곡성군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는 이를 위해 강사료와 재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정신·육체적 건강을 유지·증진·회복하는 모든 농업적 활동으로, 프로그램 운영에는 임금유치농업자와 정형복 원예치료사가 함께 대상자 맞춤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씨앗심기, 가꾸기, 수확하기 등 텃밭가꾸기 뿐만 아니라 테라리움, 접시정원 만들기 등 원예치료, 물레를 활용한 도예 체험 등 다양한 치유활동을 통해 대상자들의 신체활력 증진과 정서적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텃밭을 활용한 식물 가꾸기와 원예치료는 자연 속 신체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및 우울감 해소와 치매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연남 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치유 프로그램이 치매 및 우울증 환자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되어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회적 소외계층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대상자 모집
화순군, 16일까지 신청

화순군은 오는 16일까지 2025년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1일 화순군에 따르면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해 정책자금과 경영교육 등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2020년 및 그 이전에 선정된 자)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으로, 최대 2억원의 용자를 연 고정금리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지원 대상자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신청서와 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대출신청자료와 사진신청조사서 등이다.

이번 우수후계농 선발 인원은 전국 500명이다. 시도별 배정 없이 전국 단위 고득점자 우선순위로 5월 중 전문평가관의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화순=김선종 기자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
담양군, 총 270가구 대상

담양군이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금속배관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1일 담양군에 따르면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은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 밸브를 차단해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5세 이상 서민층 및 취약계층 240가구에 설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금속배관 교체) 사업은 가스 사고에 취약한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대체하고 퓨즈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0가구에 설치 비용 29만원을 가구당 지원하며 자부담 10%(2만9000원)가 소요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시공사가 5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방문해 설치할 예정이다.

담양=신재현 기자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담양군, 불법 소각 단속 강화 등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담양군이 오는 15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불법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1일 담양군은 지난달 22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효에 따라 산불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지휘 체계를 점검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 불법 소각 단속 강화, 입산자 실화 감시 방안 등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15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 예방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전 공직자에 담당구역을 지정, 순찰활동을 벌인다.

산림인접지역에서는 영농부산물, 논·밭두렁, 생활쓰레기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주요 관광지 및 마을회관·경로당 등에 방문해 홍보물을 직접 배부하는 등 산불 방지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현재 군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54명을 지역 곳곳에 배치해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공직자 비상근무도 이어가고 있다.

이달 첫째 주에는 담양소방서와 추월산, 병풍산 등지에서 산불예방캠페인을 진행하고 담양군 주요 관광지인 죽녹원에서 합동 소방훈련을 추진한다.

담양=신재현 기자



지난달 28일 함평군 월야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원들이 관내 취약계층 가구를 찾아 오래된 장판과 벽지를 교체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월야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주거 환경개선 봉사

함평군 월야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활동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1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월야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지역 내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 대상은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로, 오래된 장판과 벽지로

인해 위생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었으며 노후화된 전기배선은 화재 위험을 안고 있는 상태였다.

복지기동대는 즉시 고장난 전기 배선을 수리해 화재를 예방하고, 낡은 벽지와 장판을 새롭게 교체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했다.

정정오 복지기동대장은 "봉사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다.

홍명희 월야면장은 "항상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쳐주시는 기동대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딸기반 교육생 입교

실습 위주 3단계 커리큘럼 운영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한 창업농지원센터에서 서종경 센터장 및 청년농부사관학교 13기 딸기반 교육생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입교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는 만 45세 미만 창농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4개월 귀농장기교육과정으로, 2018년 1기를 시작한 이후 2024년까지 12개 기수 64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13기의 경우 지난달 31일 딸기반을 시작으로 오는 14일 토마토반 30명, 5월 12일 엽채류반 30명이 입교할 예정이다.

교육은 △(농업입문교육(이론)) 재배기술, 병해충관리, 토양관리, 원예학 기초 등 농업이론교육 △(중급교육(실습)) 희망작물 실습농장 파견 및 도제식



지난달 31일 농협중앙회 청년농부사관학교에 딸기반 교육생 30명이 입교했다.

농협중앙회 제공

학습△(고급교육(이론)) 사업계획서작성 및 창농 준비, 농기계 자격증 취득 지원 등 3단계, 총 400여시간의 커리큘럼으로 편성된다.

졸업 후에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영농정착단계별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창농 초기 직면할 수 있는 농지 마련, 마케팅, 판로 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

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종경 농협창업농지원센터 센터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청년귀농장기교육과정인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축하드린다"며 "농협에서 세심하게 준비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해 우리 농업·농촌을 이끌어 나갈 미래 선진 농업인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